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업 자금 설계의 차별성

“재무Risk - Airbag은 있으신가요?”

■■■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수명이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다. 아무리 일류기업이라도 영원한 승자는 존재하기 어렵다. 환경변화의 적응여부에 따라 단명할 수도 무한정 장수할 수도 있는 게 오늘날 기업의 현실이다.

기업이 단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기업 모두 수지가 맞지 않으면 빚더미를 피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의 CEO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다.

“매출도 그럭저럭 하고 있고, 이익도 제법 나고 있는데 현금흐름도는 별로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치가 않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기업의 영업, 생산, 판매, 재무활동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일이기 때문이다.

재무설계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돼야 하는데, 투자성향에 따라 공격적으로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는 반면, 극히 안정 지향적인 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안정지향적인 기업이라면 정기예금 등을 통한 소극적 투자를 하기도 한다. 공격적이거나 안정적인 것 중 어느 것이 옳다는 이분법적 판단은 곤란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융파생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기업의 자산을 위험자산과 안정자산으로 구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기업투자자금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 자금은 일반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자금으로 구분한다.

단기자금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편리성에 중점을 둔다. 흔히들 보통예금상품을 운영하는데 최근엔 MMF, MMDA, CMA 등의 다소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 수시입출금상품을 이용하기도 한다. 만일 기업통장의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은 이러한 상품운영으로 직원 몇 명의 월급 정도는 이자수익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중기자금은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운영되는 자금으로 보통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 달성에 중점을 둔다. 보통의 기업은 1년 또는 3년 만기 정기적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고수익

을 원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심리를 활용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ELF(주가연계펀드)에 관련된 다양한 상품이 쏟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부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2007년)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가입한 펀드의 99.5%의 상품이 원금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84%의 상품이 5% 이상(수수료 제외)의 상환수익률을 돌려주었다. 즉 상환된 펀드만 보면 ELF가 은행예금과 비교하여 꽤 괜찮은 투자상품이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High Risk High Return의 투자원칙을 고려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이 요구된다.

장기자금은 5년 이상 운영되는 자금으로 안정성과 복리의 마술 효과에 따른 수익률에 중점을 둔다. 보통 보험회사의 상품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상품이다. 특히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CEO 및 임원은 기업의 재무 리스크가 CEO 및 임원에게도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로 활용이 가능하고, Banking 기능을 통해 긴급자금을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연금상품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연복리의 이자수익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단기, 중기, 장기자금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단순한 상품가입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금융시장이 성숙되지 못해서 지인 또는 비즈니스의 관련성으로 인해 마지못해 상품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가입의 목적성을 잃지 않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인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그래야 애써 실행한 기업재무의 포트폴리오가 위기 또는 비상시 Airbag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인된 전문가를 통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자산관리가 목적인 바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 수정할 수가 있으며, 위험자산과 안정자산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기업의 자금운영은 기업이 재무적 곤란을 겪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